

 <p>정치하는엄마들 www.politicalmamas.kr</p>	보도자료		
	보도일시	2018. 11. 12. 월. 오전 11시 30분	
	담당	장하나 활동가	010-3693-3971
		조성실 활동가	010-4023-0671
	배포일시	2018. 11. 12.	총 3매 (별첨 0건)

유피아3법 정기국회 통과촉구 기자회견 〈한유총은 좋겠다. 자유한국당이 있어서!〉

- ▲ 정치하는엄마들, 국회 내 한유총 비호세력 공개할 것
- ▲ 유피아3법 반대하는 정당은 지지율 반토막 날 것
- ▲ 국감이 정치쇼인가? 유피아3법 없는 정기국회 시민이 심판할 것

■ 일시 : 2018년 11월 12일(월) 오전 11시 30분

■ 장소 : 국회 정문 앞

■ 주최 : 정치하는엄마들

■ 순서

1. 홍소영 활동가 (사립유치원 관련 국회 회의록, 입법 활동 모니터링 소감)
2. 강미정 활동가 (사립유치원 관련 국회 회의록, 입법 활동 모니터링 소감)
3. 오승희 활동가 (유피아종결3법 통과가 절실한 국회의원은 과연 있는가?)
4. 기자회견문 낭독

□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은 12일(월) 오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피아3법의 정기국회 회기 내 통과를 촉구했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박용진 의원이 감사적발 유치원 명단을 공개한 후 유치원 비리행태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한 달 넘게 지속되고 있다. 이에 더해민주당은 지난 10월 23일 유피아종결3법(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을 당론발의하고 12일 오전 국회 교육위 법안소위에서 첫 심의가 이뤄진 상황이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관련 법안을 발의할 테니 병합심사하자고 법안 통과를 지연시키는 상황이다.

□ 이에 정치하는엄마들은 ‘유피아3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고, 자유한국당이 관련법 개정을 방해하는 것을 좌시하지 않겠다’고 피력했다. 또한 ‘자유한국당이 유아교육 정상화에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며, 50만 사립유치원 원아의 행복보다 4천명의 사립유치원 설립자의 사적이익을 대변하는 정당’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리고 정기국회가 끝나는 11월말까지 국회 내 한유총 비호세력을 공개하고 유피아3법을 반대하는 정당의 지지율을 떨어트리기 위한 시민직접행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정치하는엄마들 장하나 활동가는 ‘민주당의 발의한 유피아3법은 유아교육 정상화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며 ‘자유한국당은 정기국회에서 해당 법안들에 동의하고, 추가 입법을 해도 무방하다’고 말

했다. 또한 ‘자유한국당이 노골적으로 비리유치원 편들기에 나선다면 정기국회가 끝날 때까지 자한당 지지율은 반토막 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 현재 유치원 지원금으로 투입되는 교육부 예산은 연 2조원 수준으로 대한민국 전체 약 2천만 가구당 10만원의 복지·교육 재정이 유아교육에 투입되고 있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는 집단 휴업 등 단체 행동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최근 지역별로 휴·폐원 및 신입생모집 지연 담합이 일어나고 있으며 학부모와 예비 학부모들은 불안에 떨고 있다.

<기자회견문>

한유총은 좋겠다. 자유한국당이 있어서!

우리는 지난 1년 간 정보공개청구와 행정소송, 그리고 수차례의 기자회견을 통해 감사적발 유치원의 명단을 공개하고 학부모 알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유아교육 정상화의 유일한 길이라고 주장해왔다. 그리고 지난 10월 11일 국정감사에서 국회 교육위원회 박용진 의원이 감사적발 유치원 명단을 공개함으로써 우리의 주장이 사실임이 입증되었다. 만약에 국민들이 유치원의 비리행태와 비리유치원의 명단을 알지 못했다면, 정부도 종합대책을 내놓지 않았을 것이고 유치원 비리는 계속 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지난 10월 23일 더불어민주당은 유아교육 정상화를 위한 유피아 종결 3법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박용진 의원이 대표발의 한 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이 바로 그것이다. 유피아3법은 유치원 비리를 근절하는 최소한의 조치에 불과하다. 유아교육법 개정안은 비리유치원의 재개원을 방지하고, 사립유치원에도 국가관리회계시스템을 도입하고, 누리과정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지급하여 사적 유용을 방지하고, 지원금을 부당 사용했을 때 반환할 수 있도록 하고, 유치원 감사 내용을 공개하는 등의 내용이다.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사립유치원 설립자 및 원장이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을 교육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설립자 셀프 징계로 징계를 면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다. 학교급식법 개정안은 유치원도 초중고와 마찬가지로 학교급식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며, 급식업무 위탁 시 유치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일정 요건을 갖춘 자에게만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다.

자유한국당은 자당이 관련 법안을 발의한 후 병합 심사하자는 논리로 유피아3법 통과를 지연시키고 있다. 민주당이 발의한 유피아3법에 반대하는 게 아니라면 일단 위 법안을 심의 의결하여 정기국회 내에 통과시킨 다음, 자한당의 법안을 발의하면 될 것이다. 그게 아니라면 자한당은 유아교육 정상화를 위한 최소한의 법 개정을 반대하면서 한유총의 입장만 대변하고 있을 뿐이다. 유치원 대란이 올까봐 학부모들과 아이들이 불안에 떨고 있는데 지금 병합 심사가 대순가? 자한당은 사립유치원 설립자 4천여명의 사적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50만 아이들의 교육권과 건강권, 안전권, 행복추구권을 외면하는 것이다. 자한당의 행태로 인해 아이들은 울고, 한유총은 웃고 있다. 유피아3법 통과는 단지 50만 사립유치원 원아와 그 가족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매년 2조원 가량의 막대한 교육부 예산이 유아교육에 투입되고 있다. 즉 대한민국 전체 2천만 가구당 10만원에 해당하는 교육·복지 예산이 유아교육에 쓰이는 것이다. 국가 재정이 투입되는 한 모든 이것은 모든 국민의 문제이다. 그리고 대한민국 미래세대가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한 것에 수궁할 국민은 없다. 애초에 교육기본법에 따라 유치원은 비영리라는 것을 알면서도 수십억의 사유재산을 투자해서 불법으로 돈벌이를 하려고 든 것은 수익률이 막대하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다. 유아교육이 망가진 것은 국가 정책의 실패이기도 하고, 국회의 직무유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나 지금까지 아무도 손해 보지 않았다. 오히려 사립유치원은 막대한 이익을 누렸고, 아이들과 학부모들만 고통을 떠맡았다. 유치원 비리 행태가 세상에 드러난 이상, 아이들이 피해를 감수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정부도 국회도 유피아3법 통과에 사활을 걸어야만 하는 이유다.

자유한국당은 국회 299석 중 112석(37.46%)를 확보하고 있다. 정당 지지율의 두 배 가까운 의석 점유율이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 유피아3법 통과는 국민의 뜻에 역행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이 노골적으로 유피아3법을 반대하고 나온 이상 이제 유피아3법 통과는 오롯이 국민의 의지와 행동에 달렸다. 11월 29일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 날까지 정치하는엄마들은 국회가 아닌 국민에게 유피아3법 통과를 호소할 것이다. 자유한국당이 끝까지 유피아3법 통과를 저지하고 한유총을 비호한다면 현재 지지율(11월 첫 주, 리얼미터 20.5%/한국갤럽 14%)을 국민의 손으로 반토막 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6.13 지방선거 참패 후 당을 제건하겠다고며 비대위 체제로 굴러가고 있는 자유한국당을 시민들이 해체시켜 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립니다. 교육기관이 아이들을 상대로 돈벌이를 하고 있는데 사유재산을 지켜줄 생각만 하는 정당을 국민이 반드시 심판해주시기 바란다.

이제 돈이 안 되니 문 닫겠다는 게 무슨 교육기관인가? 그들에게 아이들은 학생이 아니라 손님에 불과하고, 유치원은 학교가 아니라 업소일 뿐이다. 장사꾼 호칭도 과분하다. 교육자의 탈을 쓴 장사꾼을 비호하는 국회의원은 정치인의 탈을 쓴 장사꾼에 불과하다. 정치하는엄마들은 국회 내 한유총 비호세력의 민낯을 공개하고, 유피아3법을 반대하는 정당의 지지율을 한 자릿수로 끌어내리기 위한 시민들의 직접 행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국민들의 뜨거운 관심과 분노를 일으키고도 유피아3법을 이번 정기국회 안에 통과시키지 못한다면 국정감사는 정치쇼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그리고 유피아3법을 당론 발의한 민주당도 무능에 대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유아교육 정상화, 백년 묵은 적폐를 청산하는 것은 물론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아이들의 웃는 얼굴을 상상하면서 각자의 위치에서 할 수 있는 실천을 해 나간다면 평범한 엄마들, 힘없는 시민들이 세상을 바꿀 수 있을 거라고 우리는 믿는다.

2018년 11월 12일
정치하는엄마들

**교육자의
탈을 쓴
장사꾼,
국회의원
탈을 쓴
장사꾼.**

정치하는엄마들
www.politicalmamas.kr

**사립유치원
설립자 4천명
원아 50만명
자유한국당은
누구를 위한
정당인가?**

정치하는엄마들
www.politicalmamas.kr

**국감이
정치쇼냐?
유피아3법
정기국회 내
반드시
통과시켜라!**

정치하는엄마들
www.politicalmamas.kr